

[기획] >> 4면
무전공 입학 제도

[기획] >> 5면
천원의 아침밥

[사회] >> 8면
범람하는 외국어 간판

[인물] >> 12면
김선웅 작가

무전공 입학 제도의 이상과 현실, 유의미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선

교육부는 다음 해부터 무전공 입학을 실행하는 대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 역시 무전공 입학에 대한 검토가 논의 중이다. 무전공 입학에 대한 △설명△다양한 시선들△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자유술 기자 07yuso@hufs.ac.kr

우리학교, 동대문구와 전·월세 안전 계약 매뉴얼 및 세미나 개최

지난달 28일 우리학교는 서울캠퍼스 사회과학관 302호에서 동대문구와 공동으로 전·월세 안전 계약 매뉴얼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선 상해방지 전·월세 안전 계약 세미나가 진행될과 함께 전세 사기와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에게 전·월세 안전 계약 안내문을 배포했다.

이번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여운'(이하 총학)과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의 협업으로 약 90분 동안 진행됐다. 최근 서울캠퍼스 주변에서 전·월세 계약 사기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계기로 두 기관이 손을 잡고 개최한 것이다. 사전에 구글 폼(Google Forms)으로 참가신청을 받은 후 동대문구 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에게 안전한 주거를 지원하고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올버튼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교육은 임대차 계약 시 필수적으로 인지해야 할 내용을 비롯해 △임대차 관련 용어△임대차계약에서의 특약△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전

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다뤘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화상회의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한 실시간 중계도 진행됐다. 최대한 많은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또 총학은 전·월세 안전 계약 매뉴얼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공개해 많은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동대문구에서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당 교육과 관련한 추가 문의 사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2127-419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우리학교, 2024학년도 입학식 개최해

지난달 29일 우리학교에선 2024학년도 입학식이 개최됐다. 입학식은 서울캠퍼스 오바마홀(Osama Hall)에서 오전 11시 및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컨퍼런스홀(Conference Hall)에서 오후 2시에 열렸다.

지난 1954년 설립되어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우리학교는 이번 해에 설립 2125명과 졸업 1799명으로 총 신입생 3924명이 입학했다. 이번 입학식은 양 캠퍼스(이하 양캠퍼) 학생·인재개발처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돼 △권오갑 HD현대 회장(서양어·포르투갈어 71)△김현우 SBS 앵커(일본·일본어 98)△윤비 조나단(사회·정의 20)△이덕선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서양어·독일어 58)△이호덕 해외동문연합회 회장(아시아·마인어 70)△조현동 주 미국대사(서양어·스페인어 78) 등 여러 동문들과 7개국 주한대사의 신입생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이어서 스기수단 및 내빈 입장△국민의례△내빈소개△

입학자가 선언△신입생 선서△박정운 총장(이하 박 총장) 축하△양인집 총동문회장 축하△스고가 제창이 진행됐다.

박 총장은 축사를 통해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한 학부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학생들에게는 △첫째로 스스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학생△둘째로 창의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실천하는 학생△셋째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찾고 구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학교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인류의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길 소망한다"며 "학생들이 꿈을 꾸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양캠퍼스 신입생뿐만 아니라 △가족△지인△재학생 선배 등이 모여 신입생들의 입학을 함께 축하했다.

이기쁨 기자 08gippeum@hufs.ac.kr



우리학교 2024 중앙 새맞이행사 개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우리학교 제58대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여운’과 제40대 설캠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포커스(FORCUS)’가 ‘2024 중앙 새맞이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에 별도로 진행됐던 신입생환영회와 동아리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된 것으로 부스 운영과 무대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체 부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됐다. 설캠 잔디광장에 설치된 총학 중앙부스에선 스마트톡(SmartTok)△명함△배경화면 및 굿노트(Good Note) 속지△복권스�티커△친환경 물병△키스킨(Keyboard Skin)으로 구성된 신입생 입학기념품이 배부됐다.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도 준비됐다. 신입생이 입학신고서를 작성해 부스에 제출하면 비행기 탑승권 컨셉의 표와 명찰을 지급하며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응원하는 행사였다. 기념품은 전량 소진됐으며 신입생들이 자신이 받은 기념품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증하는 등 열띤 참여가 돋보였다.

동아리박람회 부스는 캠퍼스 전역에 약 41개가 설치됐다. 부스별로 동아리 소개가 적힌 입간판과 작은 행사를 구성해 우리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홍보했다. △간이 사진관△우리학교 캐릭터인 부(BOO)의 대형 인형△스커피차△푸드트럭도 설치돼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는



▲초청가수 헤이즈(Heize)의 공연 모습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행사 첫째 날 오후 5시부터는 운동장에서 신입생 환영 무대가 이어졌다. 무대 프로그램은 △동아리 공연△응원제△외대인 선포식△가수 헤이즈(Heize)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동아리 공연에선 총학 산하 특별기구인 문예갈래협의 회에 이어 △외인부대△롭스 도비(HUFS DOBY)△새물결△에프에이(F.A)△노래나래△아이기스(AEGIS)△제인(JANE)이 무대를 장식했다. 동아리 공연 이후엔 중앙동아리 아이기스와 외인부대가 함께 준비한 응원제를 통해 우리학교 응원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의 학생회가 인사와 소개를 한 뒤 다함께 ‘나의 사랑 외대여’를 제창하는 외대인 선포식을 진행했다. 무대의 마지막은 초청 가수 헤이즈가 장식했다. 신입생과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뜨겁게 호응하고 공연을 즐기면서 애교심을 다질 수 있었던 행사였다.

총학과 함께 새맞이행사를 개최한 이예진(아시아·인도어 21) 우리학교 설캠 동연 회장은 “학우분들이 행사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과 활기찬 우리학교 분위기를 보니 보람차고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기쁨 기자 08gippeum@hufs.ac.kr

재단법인 현마육영재단, 2024학년도 제14기 장학금 수여식 개최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Minerva Complex) 국제회의실에서 이번 해 현마육영재단 제14기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됐다. 이날 수여식엔 이성의 현마육영재단 이사장(이하 이 이사장)을 비롯해 △김민정 재무·대외부총장△박정경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박정은 총장(이하 박 총장)△안수현 법학전문대학원장△이준섭 현마산업대표이사△이지연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신규 선발 장학생 4인△기존 장학생 8인△학부모들△홍성민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는 현마육영재단을 설립해 장학생을 선발한 것이다”며 장학생들에게 “△근검절약하는 사람△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마쓰시다 고노스케(松下幸之助) 파나소닉(Panasonic) 창업자는 자신의 재산과 배움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삶을 바쳐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항상 건전한 삶을 살며 꿈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미래를 향해 정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은 “15년 전 이사장님의 장학재단 설립 계획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계획한 일을 마음으로 전달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그의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나눔의 정신과 우리학



▲장학금 수여식 모습 (출처: 전략홍보팀)

교의 장학정신을 모두 이어받은 현마의 장학생들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국가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리라 믿는다”라며 장학생들에게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장학금 수여식 후에는 교수회관 귀빈식당에서 점심 만찬이 진행됐다. 해당

만찬에서 △재단 관계자들△학교 관계자들△장학생들△학부모들은 식사를 함께하며 이 이사장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현마육영재단과 이 이사장은 우리학교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마육영재단은 2010년 설립된 후 이번 학기까지 총 12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8억 3,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 유능한 인재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 그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호연지기를 마음껏 키워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이사장은 1979년 무역 업체인 삼우무역을 설립하였으며 한국수입협회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64학번인 이 이사장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모교인 우리학교 경영대학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으며 이후 2010년에는 현마육영재단을 설립하고 2011년 제1기 장학생을 선발하는 등 장학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백재승 우리학교 국제금융학과 교수, 한국금융산학학회 창립회장 선임



▲백재승 국제금융학과 교수 (출처: 전략홍보팀)

학회 고문△박정은 우리학교 총장△백혜련 국회 정부위원장△오건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 등이 참석했다.

백재승 우리학교 국제금융학과 교수(이하 백 교수)가 지난달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금융산학학회 창립식 및 초대 세미나’에서 해당 학회의 초대 창립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행사는 임오경 경기 광명시갑 국회의원의 환영사를 포함해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양정숙 개혁신당 비례대표△윤주경 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나재철 한국금융산학

백 교수는 “한국금융산학학회는 진정한 의미의 산학 협력을 추구하고 △공기업 △금융기관△일반 기업의 금융 중사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학회다”라며 “이를 통해 현장과 학문의 경계를 허물어 현실적인 도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은 모든 계층의 발전을 위한 동력이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금융 지원 모델을 고민하고 현실적인 도전에 대한 산학협력으로 상생의 해결책을 모색해 이를 실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03년 우리학교 교수로 임용된 백 교수는 △금융시장론△외환시장의 이해△증권시장론 등 금융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학교에서 경상대학 학장 및 국제사회교육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양성사업단(GTEP) 단장을 맡고 있다. 2008년엔 풀브라이트(Fulbright) 재단 중견연구자로 선정돼 미국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 캠퍼스(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경영대학에서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금융

위원회△우정사업본부△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공항공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해 왔으며 공인회계사(KICPA) 시험 출제위원도 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금융시장의 이해△증권시장의 이해△외환시장의 이해 등이 있다.

한편 한국금융산학학회는 학문 지식과 현장 경험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 시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해당 학회는 산업계 여러 전·현직자의 참여와 기여를 통해 미래의 금융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금융 산학협동의 중요성을 고찰하는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최승필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최승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전략홍보팀)

있다. 또한 우리학교에서 기획조정처장과 홍보실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학연

최승필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최 교수)가 2023 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 동계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돼 2년간의 임기를 보낼 예정이다. 최 교수는 우리학교에서 법학 학사와 공법 석사를 취득하고 독일 뮌헨주르크스대학교(Julius-Maximilians-Universität Würzburg)에서 행정법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지난 2007년부터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과 금융경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학교에서 기획조정처장과 홍보실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학연

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감사원△국방부△국회△법제처△외교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한 최 교수는 △금융감독원 감독총괄자문위원△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위원장△서울대학교 재정경제위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표 저서는 법의 균형과 법의 지도이며 공저 포함 총 15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입법이론실무학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입법에 있어 △입법 분야 △입법 대상△입법 과정△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에 대한 평가를 순수 학문적 이론뿐 아니라 실무적 관점에서 다루는 학회다. 해당 학회는 △국회△법원△법제처△중앙정부△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입법 분야에 대한 학문 및 실무적 성과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최 교수는 “국회 및 정부 그리고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법과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들과도 협력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기쁨 기자 08gippeum@hufs.ac.kr

인적 드문 학내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개강을 맞아 캠퍼스 곳곳에 학생들이 북적이기 시작했으나 유독 학생들의 발걸음이 드문 공간이 있다. 본관 뒤편의 미네르바 광장과 본관 5층에 위치한 하늘공원이다. 이 공간들은 부지에 비해 여러 행사가 잘 열리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

들이 설만한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사를 통해 △미네르바 광장과 하늘공원의 낮은 활용도△학교 측과 총학생회 측의 계획△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내 공간의 낮은 활용도

미네르바 광장은 본관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관△법학관△인문관을 이어주는 공간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캠퍼스 정면과 떨어져 있어 많은 학생들이 자주 찾는 공간은 아니다. 하늘공원은 본관 5층에 위치한 정원이다. 그러나 캠퍼스 내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찾아가는 길도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아 미네르바 광장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들의 낮은 활용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시설관리팀에 문의했다.

시설관리팀의 관계자는 “미네르바 광장과 하늘공원의 낮은 활용도는 인지하고 있으나 미네르바 광장을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책임자는 없다”고 언급했다. 미네르바 광장과 하늘공원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엔 “부서 업무 외의 사항이다”란 답으로 일관했다. 이외에도 설캠 △건설기획팀△총괄지원팀△학생지원팀에 문의해 왔으나 모두 “부서 업무 외의 사항이니 다른 부서에 문의해 보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처럼 학교 측 또한 미네르바 광장과 하늘공원의 낮은 활용도를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담당 부서나 운영 방안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측은 “해당 공간에 대한 낮은 활용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기에 대신 잔디 광장이나 붉은 광장을 행사 개최 장소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네르바 광장과



▲본관 5층 하늘공원의 허전한 모습

하늘공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추가 질문엔 “아직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지만 해당 공간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총학 측 또한 미네르바 광장과 하늘공원의 낮은 활용도를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인적 드문 학내 공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현재 설캠의 미네르바 광장과 하늘공원은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잔디광장 및 붉은 광장과 떨어져 있기에 접근성이 부족하다. 또한 의자와 같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적다. 실제로 미네르바 광장에 설치된 편의시설물은 대리석 계단이 전부였다. 이러한 시설 부족에 대해 학교 측에 해결방안을 문의했으나 구체적인 운영계획은커녕 담당자도 배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교내 공간은 학생들의 활동 무대이자 터전이기에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측이 미네르바 광장과 하늘공원의 낮은 활용도를 인지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이 교내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위 두 공간 외에도 우리 학교 내에 활용되지 않는 여러 장소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어우러져 이 공간들이 다시 활기찬 곳으로 변모하길 기대해 본다.

박진하 기자 08jinha@hufs.ac.kr

후속보도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진정한 도약을 위해선

2022년에 시작된 청년희망적금이 지난달부터 만기돼 약 21조 원이 넘는 청년희망적금 납입액이 순차적으로 시중에 풀릴 예정이다. 지난 외대학보 1065호에선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기획 기사를 통해 학생들의 경제생활을 조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희망적금과 연계하기 위해 시작된 지금의 청년도약계좌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액을 유입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중 은행들이 △높은 금리△청년 맞춤 혜택△짧은 만기를 내세우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을 예치하고자 노력 중이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의 문제점과 우리 학교 학생들의 반응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도약계좌의 문제점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난 2022년에 시행한 적금 상품이다.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이 제공하는 연 최대 8~9%의 이율에 따라 만기 시 최대 1,3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에 지난 외대학보 1065호 기획 기사에선 청년희망적금을 포함한 정부의 청년지원정책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다뤘으며 이번 기사에선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시점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희망적금과 연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만 19세~34세△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납입한다면 원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최대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40만 명 수준으로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 수가 200만 명 이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실적이 부진하다. 또한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정책 간의 연계를 계획했으나 그 연계율은 현재까지 약 10%에 그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에 달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고물가△고금리△높은 가계부채△부진한 고용시장이 지속되며 청년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됐기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만기가 긴 청년도약계좌를 선호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청년도약계좌는 오로지 ‘적금’의 형태만 지원한다. 초기 청년도약계좌는 ‘계좌’로서 주식 및 채권과 연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시스템 구축 부족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적금의 형태만 지원하게 돼 그 효과와 의미가 쇠퇴했다. 세 번째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연 4~5% 이율을 얻을 수 있지만 1~2%의 추가적인 이율

을 얻기 위해선 은행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급여 이체 통장 사용△마케팅 정보 제공 동의△만기까지 가입 유지△카드 결제 실적 등의 은행별 조건을 충족할 때만 최대 연 6%의 이율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연 카드 결제 실적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3년간 1,0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도 월 30만 원 이상 결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는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금 마련이라는 청년도약계좌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부분이다. 즉 △만기 기한△적금만 지원되는 형태△카드 결제 실적 요구로 인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이 청년도약계좌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반응 및 나아가야 할 방향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권민혁(상경·경제 23) 씨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다가오고 있으나 어디로 돈을 옮겨야 할지 모르겠다”며 “청년도약계좌는 처음 들어봤고 다른 시중 은행 적금 상품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답했다. 손채영(서양어·독일어 23) 씨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기를 채울 자신이 없고 중도 해지할 것 같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최근 정부가 시행 중인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에 더 관심이 가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를 잘 몰라 다른 적금 상품을 찾는 학생도 있었으며 해당 정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학생도 있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가 미미한 가운데 시중 은행들은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적금 상품들을 출시하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액을 예치하고자 노력 중이다. BNK부산은행은 ‘청년주택드립청약통장’을 일정 조건 이상 충족해 가입하는 선착순 500 명에게 2만 원의

캐시백(Cashback)을 제공하는 상품을 내세웠다. 또한 청년들의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 고가의 헤드셋(Headset)이나 스마트 워치(Smart Watch) 등을 사은품으로 내세워 청년층 신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년들의 짧은 만기 선호를 노리는 상품도 등장했다. 하나은행의 ‘급여하나 월 복리 적금’은 만기 1년으로 만 35세 이하 청년에게 연 5.85% 최대 이자율을 지급한다.

시중 은행은 이처럼 다양한 적금 상품을 내놓으며 청년 중장기 자금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시중 은행들이 제시한 상품들 대부분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에 은행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중 은행들이 내세우는 청년 적금 상품들은 그 혜택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청년도약계좌는 여러모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막대한 크기의 청년희망적금이 시중 은행의 적금 상품으로 유입되고 있다.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금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은행권의 청년층 자금 유치를 정부가 바라보기만 해선 안 된다. 시중 은행들의 적금 상품은 그 조건과 혜택을 청년들이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금리 상황 및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기에 변동성이 크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 없다면 현재 시중 적금 상품들은 청년들의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일회성 상품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청년 중장기 자금 마련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년도약계좌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향후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진하 기자 08jinha@hufs.ac.kr

무전공 입학 제도의 이상과 현실, 유의미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선

현재 입시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주제는 무전공 입학제도다. 교육부가 공개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교 육성사업의 개편 시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교 모집 정원 중 일정 인원 이상을 무전공 입학생으로 선발할 경우 수신크 원의 보조금이 정부에서 제공된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무전공 입학에 대해 검토 중이

며 이와 관련해 대학생의 전공과 취업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팽배하다. 우리학교 역시 무전공 입학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사를 통해 △무전공 입학 제도△무전공 입학 제도를 바라보는 엇갈리는 시선△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무전공 입학 제도란

무전공 입학 제도란 대학 입학 시 전공을 정하지 않는 제도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무전공 입학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무전공 유형이다. 이 유형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학생들을 모집한 뒤 보건의료 및 사범대학과 같은 특수 계열을 제외한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계열 및 단과대형이다. 이 유형은 계열 및 단과대 단위로 학생들을 모집한 계열과 단과대 내의 전공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개편 시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교의 경우 다음 해 모집 정원의 20% 이상 2026학년도 모집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 입학생들을 선발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립대학교의 경우 다음 해 모집 정원의 25% 이상 2026학년도 모집정원의 30% 이상을 무전공 선발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무전공 입학 제도의 시행 의의는 학생에게 전공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하 이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계 내에서는 전공 선택에 벽이 존재하며 졸업 시 본인의 전공으로 직업을 찾는 학생의 비율은 상당히 낮다”며 “대학이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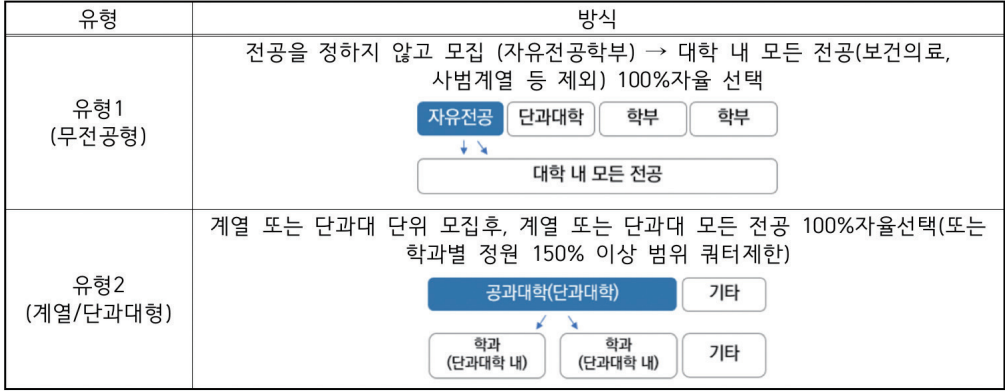
우리학교의 경우 교육부 추진과는 별개로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과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과간의 장벽을 허무는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런 와중 교육부에서 무전공 입학 비율과 재정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연계하는 정책을 발표해 우리학교 또한 다음 해 적용을 목표로 무전공 입학을 논의하게 됐다.

◆무전공 입학 제도를 바라보는 엇갈리는 시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무전공 입학에 관해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총학은 “교육부의 무전공 입학 정책은 명확한 기대효과와 우려지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중립적으로 해당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며 “학우들을 대상으로 무전공 입학 관련 해설과 설문조사를 진행해 여론을 수렴한 후 특정 입장을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총학이 예상하는 무전공 입학의 기대 효과는 폭넓은 전공 선택으로 인해 신입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택하는 것이다. 정부 측의 보조금 또한 학내 시설 개선을 위해 무시할 수 없는 액수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우려되는 점에 관해선 △구성원 소속감 저하△전

공 전문성 감소△특정 학과 쏠림 현상 등이 있다고 밝혔다. 전공 전문성과 관련해선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 총장)의 발언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박 총장은 광역화에 맞춰 졸업학점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교무처 또한 “1학년 신입생들은 전공의 교육과정 이 아닌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설캠 총학은 “기존 4년제 전공 교육과정이 3년제로 축소될 것이기에 전공 전문성이 감소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언어 교육에 특화된 우리학교의 특성상 전공 전문성이 감소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특정 학과 쏠림 현상으로 인해 교원과 강의실 등 학내 기반 시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같이 무전공 입학 제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총학은 “여러 학사제도 개편에 수반되는 각 과정들을 분석해 학우들이 원하는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학교에선 이미 무전공 입학을 시행하고 있는 학과가 존재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유형표

한다. 이준영(기후융합학부 23) 글로벌자율전공(이하 글자전) 학생회장은 “글자전의 경우 2학년 때 본 전공이 정해지는 만큼 자신의 전공이 뚜렷하지 않은 학생들은 1학년 때 교양수업만 듣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2학년 때 전공수업을 한 번에 들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또한 “글로벌캠퍼스 경상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학과 및 수업 담당자들이 해당 학부의 본전공생들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문제 사항을 학교 측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무전공 입학 제도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무전공 입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수 융합인재대학(이하 융인) 학부장은 “모듈제를 실시한 융인은 사실상 광역화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며 “융인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모든 모듈의 수업을 듣고 2학년 때 자신의 전공 모듈을 정하기에 특정 모듈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화 모집의 시행착오를 겪어온 학과임에도 학교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며 “융인과 학교가 소통을 통해 무전공 입학에 대해 논의해 나간다면 무전공 입학 제도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무전공 입학 제도에 관해 다른 학교의 사례도 눈여겨 볼 만하다. 먼저 한양대학교는 현재 총장의 공약에 의해 자유전공학부인 ‘한양인 터칼리지’를 신설할 예정이다. 학과 계열의 구분 없이 정원 내 250명, 정원 외 80명 등 총 330명을 선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스카이스트(KAIST)△지스트(GIST)△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항공대)는 이미 무전공 입학을 시행 중이다. EBS에 따르면 카이스트에선 전산학과와 전기 및 전자공학부엔 각각 전체 학생의 28%와 24%가 쏠렸다. 지스트는 학생 절반에 해당하는 277명이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를 선택했다. 이는 가장 적은 학생이 선택한 지구·환경공학부인 15명의 18배가 넘는다. 포항공대도 비슷한 상황으로 컴퓨터공학과(27%)와 전자전기공학과(20%) 순으로 인기가 많다. 이공계 중에서도 산업계 수요가 높

은 두 전공에 입학생의 절반 가량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동대학교(이하 한동대)는 우리나라 최초로 ‘신입생 100% 무전공·무학부 입학’을 시행했다. 한동대의 경우 성적 및 인원 제한 없이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졸업 전에 선택한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전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지난 28년 동안 전공이 맞지 않아 반수 혹은 재수하는 학생의 수가 다른 학교와 비교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무전공 입학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촘촘하게 학생을 지도하고 다음 단계로 학과 수강 안내가 이뤄져야 하는

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방황하는 학생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진로 지도가 충분하지 않아 특정 학과로 쏠리는 현상도 존재할 것이다”며 “이런 현상들에 대한 대책으로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전적 학습 태도를 충분히 기르고 장래 희망의 방향성을 정해 학습 설계를 신중히 해야 한다”며 “특정 학과의 학생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강의실의 제한이나 교강사 부족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단순히 입시제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반 시설 측면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전공 입학에 대한 학사 개편이 아직 논의 중인 가운데 우리학교는 무전공 입학의 기대효과와 우려지점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전공 입학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우리학교가 단순히 입시제도의 개편만이 아닌 시류에 맞춰 다양한 학문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천원의 아침밥,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한 끼를 위해선

우리학교는 지난달 27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시행을 공지했다. 지속적인 학생들의 요구에 힘입어 시행된 사업인 만큼 운영 방식과 현장의 반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 개요 및 과정△현황과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개요 및 과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야간 및 원격 대학을 제외한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해 기준 총 186개 대학이 참여 중인 이 사업은 △고물가로 인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 완화△쌀 소비문화 확산△53%에 달하는 대학생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 감소를 목표로 도입됐다. 재원의 경우 기존엔 정부와 학교가 각자 1,000원씩 부담해 3,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1,000원에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대학가의 수요 확대 요청에 힘입어 정부 지원금이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지원 가능한 식수 인원 역시 450만 명 분으로 지난해 대비 200만 명 분 이상 증가해 더 많은 학교가 해당 사업의 수혜를 받게 됐다.

우리학교 공지사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양 캠퍼스(이하 양캠프) 모두 지난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진행된다. 이용 방식은 식당 키오스크(Kiosk)에 모바일(Mobile) 학생증 QR코드를 찍은 뒤 기존의 학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매해 이용하게 된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프)의 경우 오전 8시부터 9시 10분까지 기숙사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프)의 경우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인문과학관 학생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명우 설캠프 총괄지원팀 팀장(이하 이 팀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이전까지는 예산 부담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정부 지원금 인상과 동시에 교내 추가 예산 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식사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하는 만큼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중 글캠프 총괄지원팀 팀장(이하 김 팀장)은 우리학교의 해당 사업 재원에 대해 “정부 지원금의 인상 및 경기도청의 지원금 제공으로 기존 4,900원이었던 조식을 △정부 2,000원△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지원금 1,000원△학교 900원씩 각각 분담해 학생에게는 1,000원이라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조식 메뉴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으나 실제 천원의 아침밥 시행 이후에도 조식 메뉴는 이전과 큰 차이점이 없었다. 메뉴 선정과 관련해 이설향 설캠프 영양사(이하 이 영양사)는 “조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극적이고 맛의 표현에 중점을 둔 요리보다는 속이 편안해질 수 있는 요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을 준비하는 교직원들의 노력도 상당했다. 이 영양사는 “당직 조리원들이 오전 6시 30분부터 출근해 식사를 준비한다”며 “새벽부터 일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맛있게 먹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글캠프의 경우 전광판에 남은 조식 식권 숫자를 표기해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학생들의 식사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현황과 문제점

시행 첫 주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장혜지(영어·영문 22)씨는 “평소에 조식을 잘 먹지 않는 편인데 1,000원이라는 가격과 이 정도의 품질이 유지된다면 아침 수업 전에 꼭 먹고 갈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이 지속돼 균형 잡힌 아침밥을 합리적인 가격에 계속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나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존재했다.

우선 학생증 인식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 조미정 설캠프 식권 판매원(이하 조 판매원)은 “첫날 기준 아침 식사에 참여한 200명의 학생 중 7명



▲시행 첫날의 인문과학관 학생식당 모습

의 학생이 동일한 문제를 겪었다”며 “다행히 돌발상황에 대비해 상주하고 있던 직원이 직접 학생증을 확인한 뒤 해당 학생들도 식사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다음으로 식권의 수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조 판매원은 첫날 집계 결과 “준비된 200장의 식권이 개시 후 30분 만에 판매 종료됐다”며 “이후에 도착한 분들은 불가피하게 정가인 4,000원에 식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화요일과 수요일 또한 오전 8시 30분 경에 판매가 마감돼 기존에 예정된 2시간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식권이 소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캠프 역시 비슷한 시간대에 식권이 소진됐단 점에서 설캠프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식이 지연된다는 문제다. 설캠프의 경우 배식구는 한 곳만 개방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배식 담당 인력 또한 부족해 음식을 보충하러 이동한 사이 해당 역할을 대신해줄 다른 직원이 없어 배식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1교시 수업을 앞둔 학생들이 급하게 식사를 마친 후 강의실로 뛰어가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노연정(중국·중언문 22)씨는 “아침 1교시 수업을 앞두고 조식을 먹으러 왔는데 줄이 길어 수업시간을 맞추느라 힘들었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한편 글캠프의 경우 식권 판매 기계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학생들의 수요를 모두 처리하지 못해 발권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학생증 등록 문제와 관해 이 팀장은 “지난달 26일에 사업 대상자에 선정된 직후 준비 시간이 촉박했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업체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식권 부족 문제에 대해 “이번 해의 경우 사업 신청이 이미 마감됐기에 식수를 늘리기는 어렵다”며 “이번 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에서 관내 대학교들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며 “우리 학교도 해당 사업에 지원해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배식 시간 지연 문제에 관해 설캠프의 경우 배식구 추가 개방과 배식 인원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영양사는 “조식이나 석식에 비해 식사량이 비교적 적은 조식의 경우 더 적은 인원으로 배식을 진행한다”며 “근무자의 인건비와 200명이라는 적은 식사량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다”라고 전했다. 다만 “다음 해 식사량의 증가 여부에 따라 인력 규모 조절 논의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다른 학교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가톨릭대학교의 경우 교내 학생 자원봉사 동아리인 ‘까리파스 봉사단’을 참여시켜 배식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우리학교 역시 교내 사회봉사 수업을 활용하거나 봉사

동아리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 배식 참여를 권유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설캠프의 경우 1교시 수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한 포장 간편식의 도입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글캠프의 경우 조식에 △시리얼(Cereal)△샐러드(Salad)△우유△주스(juice)와 같은 간편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에 선정된 학교들 중 △고려대학교△경희대학교△성균관대학교 등 다수의 학교가 일반식과 함께 간편식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글캠프의 발권 지연 문제와 관련해 김 팀장은 “며칠간의 시행에서 해당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미 내부적으로 키오스크의 추가 도입이 결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중요하다. 김태동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 기획홍보팀 팀장은 “글캠프 기숙사식당의 경우 천원의 아침밥과 기존 조식을 이용하는 사생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식사량을 준비하고 있다”며 “만약 향후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 경우 만들어 놓은 조식을 전량 폐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오롯이 생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된 사업이지만 아직 시행 초기이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보편을 통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지속적인 1,000원 조식의 제공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튀르키예가 건넨 차 한 잔의 따스함

지난학기 튀르키예(Türkiye) 앙카라(Ankara)에 위치한 하제테페 대학교(Hacettepe Üniversitesi)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다. 지역은 튀르키예의 수도인 앙카라와 지방 도시인 카이세리(Kayseri) 사이에서 고민하다 적응하기 편해 보였던 앙카라의 하제테페 대학교로 결정했다.

하제테페 대학교에선 캠퍼스 내 기숙사에 거주하며 현대 튀르키예어 문학과 소속으로 △대학영어△언어관계△연구방법론과 기술△튀르키예학개론△토플△어학당 수업을 수강했다. 하제테페 대학교는 앙카라 도심에서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그래서 이동할 땐 번거롭고 귀찮기도 했지만 고즈넉한 분위기와 넓고 쾌적한 캠퍼스는 내가 어학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줬다.

수업이 없는 날엔 튀르키예 도시 곳곳으로 여행을 떠났다. △신기한 지형과 형형색색의 열기구를 즐길 수 있는 카파도키아(Cappadokya)△지중해의 코발트빛 바다가 아름다운 올루데니즈(Ölüdeniz)와 페티예(Fethiye)△튀르키예의 푸른 심장인 이스탄불(Istanbul)△흑해에 위치한 아마스라(Amasra)까지 기억에 남는 도시가 정말 많았다. 여행의 경험은 관광 자원이 넘치는 튀르키예에서 매주 색다른 풍경을 눈에 담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패키지 여행은 물론 자유 여행으로도 가보기 힘든 도시들을 버스 하나로 여행한 것은 내륙에 위치한 앙카라에서 생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어학 공부뿐 아니라 △문화 체험△사회 경험△좋은 인연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5개월 동안 전공 국가에서 생활하며 현지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문화와 사회를 배웠다는 사실이 가장 뿌듯하다. 우리나라에서 배운 튀르키예어를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들으며 소통할 때의 희열감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이었다.



이 모든건 튀르키예 사람들 특유의 환대 문화 덕분이었다. 튀르키예 친구들은 외국인인 내게 항상 먼저 말을 걸어줬을 뿐만 아니라 수업이 끝나면 카페에 데리고 가 차와 다과를 사줬다. 튀르키예에 온 '손님'이란 인식 때문인지 식당과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 나를 반갑게 맞아줬고 캠퍼스를 거닐다 만난 경비 아저씨까지도 나를 보면 항상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서 건네주셨다. 여행을 가서 그간 배운 튀르키예어로 말하면 현지인들은 깜짝 놀라며 좋아했고 △축구△케이팝(K-pop)△한국 전쟁 등을 언급하며 친근감을 표현했다. 튀르키예인들이 거리낌 없이 내 마음의 보금자리가 되어 준 덕분에 내 교환학생 생활이 더욱 빛났다고 생각한다.

튀르키예에서의 생활은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내게 가르쳐줬

다. 스나와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이해하며 기른 언어 실력△문제를 처리할 자신감△튀르키예인들의 따스한 미소에서 배운 사회성 등 지구 반대편에서 내 시야는 더욱 넓어졌고 내면은 더 단단해졌다. 물론 타지 생활을 하며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좋은 기억은 추억으로 남았고 고생은 내 인생의 자양분이 됐다. 튀르키예에서의 한 학기는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교환학생이 꼭 필요할지에 대해 지원 전까지 나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이젠 다른 사람들에게 망설임 없이 방학 단기 파견이라도 꼭 다녀오라고 추천할 수 있다. 내 해외수기가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을 앞두고 고민하는 모든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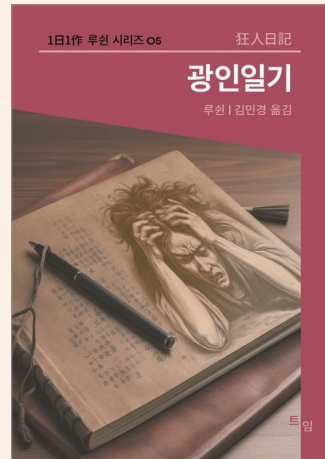
김혜은(아시아 ·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 21)



중국

<광인일기>

- 현대 사회 광인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



해당 작품의 저자인 루쉰(魯迅)은 중국 문학의 근현대기를 대표하는 소설가로 △고독△고향△아Q정전 등 다양한 명작을 발표해 문학계의 전설로 평가받는다. 그는 특히 비유적 표현을 통해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고발에 앞장서며 현상 타파를 위한 투쟁을 독려하고자 한다. 이러한 그의 소설은 현대인들이 비판적 관점에서 사회

를 바라보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광인일기는 액자식 서술을 취하고 있는데 액자 밖의 인물인 '나'가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낸 형제의 병문안을 가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형제 중 병에 걸린 동생은 지금은 완치돼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후 '나'가 동생이 병에 걸려 광인이었을 시절에 쓴 일기를 읽으며 동생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광인은 과거 고구(古舊) 선생의 장부를 발로 찬 사건으로 인해 복수를 당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갖고 마을 사람들의 눈빛과 표정을 매우 두려워하며 생활한다. 이러한 광인의 모습을 본 가족들은 그를 서재에 가둬고 그는 △과거 한 소작인이 마을 사람들의 간과 심장을 튀겨먹겠다고 한 일△마을의 여인들이 아들에게 '몇 번이고 깨물어버리겠다'라며 으름장을 놓은 일△형이 '논설은 남을 비난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준 일 등을 떠올리며 '인간들은 모두 식인을 하는 존재'라 결론을 내린다. 이후 그는 연설을 통해 식인행위를 비판하고 주변인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아직도 사람 고기를 못 먹어 본 어린이가 있을까? 아이들을 구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해당 작품에서의 광인은 당대 봉건 의식에 잠식당한 중국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 설정된 인물이란 것이 주류의 해석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 속에서 광인이 주는 의미는 사뭇 다르다. 소설에서 광인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식인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식인 행위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식인이라는 행위를 거부하는 자 신만이 정상이며 그 외 사람들은 모두 비정상이라는 아시아비적 사고를 보여준다.

이 소설은 식인이란 극단적인 행위를 상징하고 있으나 식인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사회 문제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 인구 수 만큼 다양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본인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본인이 주변인들과의 의견 차이로 마찰을 빚게 될 때 어쩌면 스스로가 점점 광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것은 어떨까.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파트너

투자금융

신기술조합/PEF 운용 | 메자닌 투자

기업금융

시설자금 대출 | 운영자금 대출

부동산금융

부동산 PF | 부동산담보 대출

리테일금융

스탁론 | 중도금 대출

키움캐피탈

암표 거래 문제, 청년들의 밝은 문화생활을 위해선

최근 청년들이 주로 찾는 공연의 입장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암표로 인한 다수의 부정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리미엄(Premium)* 거래와 사기 거래 문제로 인해 많은 청년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선 법적 및 제도적 대

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들의 암표 거래 현황△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실태△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들의 암표 거래 현황

암표 거래는 △뮤지컬△스포츠△연극△영화△콘서트 목적의 각종 입장권을 구매한 후 추가 금액을 붙여 되파는 거래 행위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표를 대량 매입한 뒤 고가로 되파는 행위가 문제시된다. 이는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이들의 공정한 구매 기회를 빼앗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다.

암표 거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로 침체됐던 공연과 스포츠 업계가 코로나 종식 이후 부활함과 동시에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약 1227%의 수치로 대폭 증가했다. 암표 거래가 급증함과 함께 이전보다 더욱 조직화된 것도 문제다. 운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악협회) 회장은 “최근 암표 거래상이 기업화·조직화됐다”며 “인력을 수십 명 고용한 후 그들에게 입장권 예매처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보내 입장권을 예매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암표 거래의 조직화는 △기술 발달△암표 거래 수법의 다양화△암표상들의 체계화를 초래해 해당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이처럼 치밀해지는 암표 거래 문제는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청년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지난해 음악협회에서 발표한 암표 거래 현황에 따르면 암표를 가장 많이 구매한 연령층은 20대로 전체 비중의 총 32.8%를 차지했다. 암표에 50만 원 이상의 추가 금액을 지불한 연령대 역시 20대가 유일했으며 암표 구매로 인한 피해 금액 또한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암표 거래가 청년들의 삶과 상당히 밀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년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던 공연을 조사해 보니 암표 거래가 성행했다. 브루노 마스(Bruno Mars) 공연의 그라운드 구역 8연석 입장권을 1억 8,000만 원에 판매하는 글과 세븐틴(Seventeen) 공연의 11구역 입장권을 500만 원에 판매하는 글은 실제 암표 거래 플랫폼(Platform)에 등장했던 내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실태

암표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추가금을 주고 구매하게 돼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먼저 한 장의 입장권을 여러 대상에게 판매하는 행위와 입장권 양도 중개 플랫폼을 위조해 가짜 입장권을 판매한 후 잠적하는 등의 사기 거래로 인한 피해가 있다. 또한 암표 거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도용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암표 문제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공연 업계 관계자에게도 손해를 끼친다. 공연이 임박한 시점에 대거 취소 표로 빠져 발생하는 손해도 암표가 야기하는 문제지만 이를 막기 위한 별도의 감시 및 처벌 시스템의 구축·유지 비용 그리고 이에 따른 관객들의 불만 증가 역시 판매처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손해 중 하나다. 그리고 이는 곧 공연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거나 공연 진행 자체를 무산시키기도 한다. 실제로 가수 장범준 씨는 지난 1월 1일 자신의 공연 입장권에 대한 암표 거래가 성행하자 공연 자체를 취소한 바 있다. 이처럼 암표 거래는 공연예술 생태계를 병들게 하는 주범으로 청년들이 질적으로 향상된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경한 대응책을 꺼내 들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정보통

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및 관람권 등의 부정 판매 금지’를 다룬 조항이 추가됐다. 해당 법률을 위반한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창현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암표상들의 목적은 거래를 통한 이익 창출이기에 거래에서 얻는 이익보다 몇 배의 재산을 몰수당할 위험 부담을 안고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며 “이번 법안 개정이 이전 대비 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만큼 암표가 근절되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한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기대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연예계에서도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존재했다. 가수 성

◆나아가야 할 방향

위와 같은 노력이 암표 거래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언급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공연이 아닌 문화행사의 경우나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엔 개정된 법률에서도 다루지 않는 대상이기에 처벌이 불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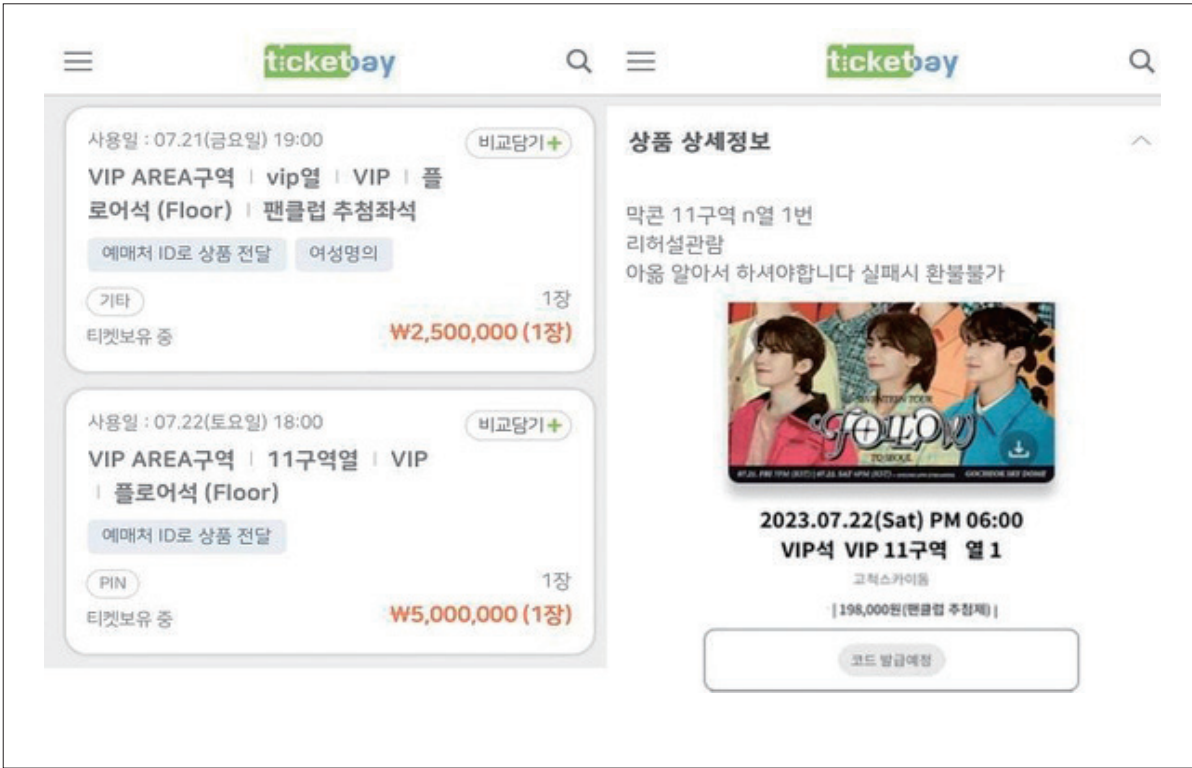
NFT 입장권 역시 아직은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디지털 소의 계층에게 접근성이 낮다. 전자기기 활용을 어려워하는 시민들의 경우 원활한 관람을 위한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비용 문제도 NFT 입장권의 한계점으로 작용하는데 해당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결국 입장권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강경한 대응책을 펼쳐 암표를 근절한 사례가 있다. 일본과 대만은 주최 측 등의 없이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재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 전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장에서의 거래만이 아닌 온라인 QR코드와 같은 전자티켓도 포함된다. 또한 일본에선 입장권을 추첨제로 판매하며 입금 후엔 어떤 상황에도 취소와 환불이 불가하다. 캐나다에선 공정한 입장권 구매 절차를 회피하는 자동 구매 소프트웨어 등의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경우들에서 알 수 있듯 암표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암표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의 측면에서 분석한 사례도 있다. 김준희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이하 김 교수)는 “우리나라 공연 시장은 어느 공연이든 대체로 입장권 가격이 비슷해 암표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는 가격 책정이 암표 발생의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입장권 가격이 다양화된다면 건강한 공연 예술 문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암표 문제는 오랜 시간 공연 문화를 병들게 한 문제로 존재해 왔다. 그렇기에 완전한 근절을 위해선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꾸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프리미엄: 동산·부동산 등의 매매에 있어서, 제 값에다 더 얹어서 거래되는 웃돈.
**매크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



▲실제 암표 거래 플랫폼 화면

시경 씨의 매니저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 접속해 암표상에게 거래하는 척 직접 연락한 뒤 역으로 신상을 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가수 아이유 씨의 소속사는 입장권 관리 대행사와 협력해 △사이트 접속 로그△이용자 패턴△예매 패턴을 분석했다. 또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의 암표 거래를 포착해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으로 해당 공연 입장권을 주거나 한정판 굿즈를 제공하는 이른바 ‘암행어사’ 제도를 운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적발된 부정 예매자에게 △입장권 무료 처리△음악 사이트 이용권 영구 정지△팬클럽(Fan club) 영구 가입 불가 등의 각종 제재가 잇따른다. 지난해 6월엔 한 암표 판매자가 입장권과 예매 내역서를 여러 명에게 판매하고 잠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도 존재했다.

한편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도 존재한다. 장범준 씨는 암표 문제로 입장권을 전부 취소한 후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NFT(Non-Fungible Token) 방식을 택했다. 추첨제로 판매됐던 이 입장권은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통해 암호화 돼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QR 코드를 통해서만 공연에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입장권에 담긴 QR 코드를 캡처해 양도하거나 재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할 수 있었다. 추가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진행토록 해 복수 계정을 활용한 조작 역시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NFT 입장권은 구매 계정을 양도해도 다른 기기에선 추가적인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입장권을 구매한 계정 자체를 판매하는 암표 거래도 차단할 수 있었다.

범람하는 외국어, 사라지는 한글

최근 우리나라에선 외국어로 된 간판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식당에선 간판뿐만 아니라 메뉴판 역시 외국어로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인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글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던 우려의 목소리를 낳는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간판의 외래어 현상△문제점과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간판의 외래어 현상

최근 여러 가게에선 간판과 메뉴판을 다양한 외국어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간판과 메뉴판이 외국어임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해외여행의 느낌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엔 발음으로도 유추가 불가능한 메뉴판들이 등장해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 일례로 한 카페에서 ‘미숫가루’를 ‘MSG.R’로 표기하는 메뉴판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 식당에선 메뉴판 가격을 원화가 아닌 엔화로 적은 후 메뉴판 상단에 ‘엔화로 표기된 가격은 0을 붙여 원화로 계산해 주세요’란 안내 문구를 배치해 논란이 됐다. 암구정엔 ‘편의점’이라는 글자의 표기를 일본 활자인 ‘가타카나(カタカナ)’를 활용해 일본어처럼 보이도록 배치한 간판도 생겼다. 2019년 한글문화연대가 12개 자치구의 7,252개 간판을 대상으로 한글 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국어 간판은 1,704개(23.5%)였고 외국어와 한글을 병기한 간판은 1,102개(15.2%)로 외국어를 표기한 간판은 40%에 육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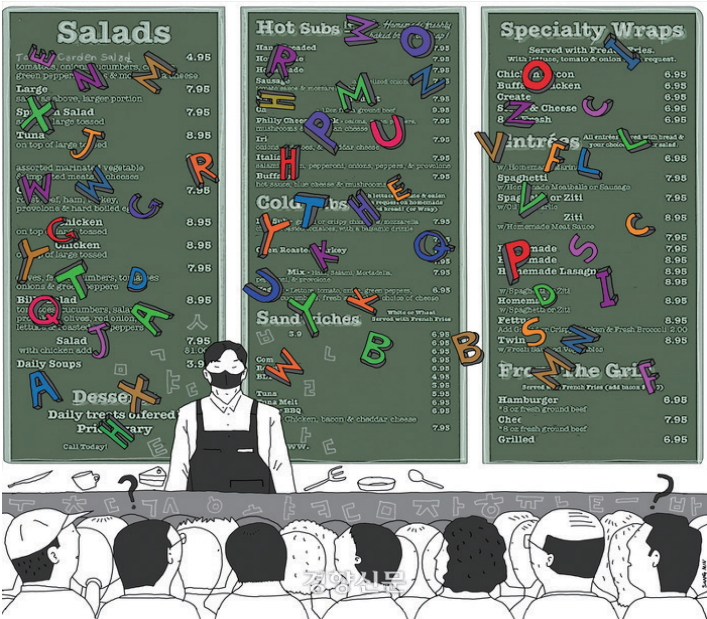
이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곳곳에서 영어 안내가 잘 돼 있어 편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유학을 온 입장에선 한국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아쉽다고 전하며 이러한 현상이 자신의 나라에선 나타나지 않기에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상의 문제점과 원인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며 외국어에 친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 소외계층은 간판 및 메뉴판을 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글문화연대가 국민 11,0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외래어·외국어에 대한 국민 이해도 조사’에 따르면 총 3,500개의 외래어·외국어 단어 중 70세 이상의 응답자 중 60% 이상이 이해한 단어는 256개로 7.3%에 불과했다. 이는 외국어 남용이 소외계층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심지어 한글학회 연구관실장은 “외국어가 지속적으로 남용되면 부족한 외국어 능력으로 인해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집단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서울에서 영어로 된 간판으로 달고 빵집을 운영 중인 A씨는 한글로 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젊은 손님들에게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밝히며 노년층 손님을 배제할 의도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실제로 노년층에게 외국어로 쓰인 간판은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을 준다. 82세인 송모 씨는 “한글 간판이 아닌 음식점은 뭘 파는 곳인지 몰라서 들어가지를 못한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렇게 과도한 외국어로 작성된 간판과 메뉴판은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해 소외계층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다.

외국어 간판 현상이 나타나게 된 주요한 원인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시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B씨는 “외국어 간판이 많은 거리를 걸으니 마치 해외여행 온 기분을 느낀다”며 외국어 간판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노유진 외식창업 연구소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 등은 유행에 맞



▲한글 없는 싸인물 (출처: 경향신문)

게 외국어 간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어 간판이 주는 독특함이나 고급스러움 등이 고객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험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 또한 그 원인 중 하나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이하 이 교수는)는 “경험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SNS 등에 공유하는 것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특징이 간판에 반영됐다”며 “외국어 간판을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해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등 여러 이점이 있어 사용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적인 허점이 존재하는 것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가게의 간판을 한글 없이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과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외국어로만 간판을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모든 간판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나서서 전수조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사항 또한 존재한다.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4층 이하에 설치된 5㎡ 이하 간판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법률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애초에 상호명을 외국어로 등록한 경우라면 해당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스타벅스(Starbucks)’나 ‘아디다스(Adidas)’와 같이 영어로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 영어 간판을 법적으로 걸 수 있다. 메뉴판의 경우 옥외광고물이 아니기에 의무 한글 표기 대상이 아니다. 즉 메뉴판 또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나아가야 할 방향

먼저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글 간판 사용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진범 한글문화연대 대표(이하 이 대표)는 “외국어 사용이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지양해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언어사용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어는 자연과 같아서 먹이사슬처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게 되기에 이를 그대로 두면 결국 우리말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욱 정확한 기준을 갖춘 적극적인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또한 “외국어 간판이 격차와 배제를 발생시키는 면이 있다면 정부가 관련 제도와 법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프랑스에선 자국어어를 보호하기 위해 ‘투봉법’을 실행하고 있다. 투봉법은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자크 투봉(Jacques Toulmon)의 이름을 딴 법률로 프랑스 파리에선 모든 상품과 서비스 광고 등에 반드시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이다. 그렇기에 실제로 프랑스에선 외국어로 된 간판을 찾기 어렵다. 이 대표는 해당 법률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역시 외국어 간판이라도 한국어와 한글을 병기하도록 확실하게 규제하거나 한글이 더 돋보이도록 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생겨야 한다”고 전했다. 법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메뉴판 역시 규제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어 메뉴판을 규제하는 법안 역시 발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 심사를 통과한 사례는 없다.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금과 같은 지원을 통해 한글 간판의 활용을 장려해야 한다. 수원시는 행궁동과 고등동에서 외국어 간판을 한글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한글간판 만들기’ 참여자를 이번 달 19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한글 간판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세계화 사회에서 외국 문화가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범람하는 외국 문화 속에서 우리 고유의 문화가 소외되지 않고 그 멋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개인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국민의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MBC 제소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MBC를 제소했다. MBC의 일기예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에선 날씨 정보를 전할 때 “오늘 서울은 1이었다”며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음을 언급한 뒤 파란색 숫자 1을 표시했다. 이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골적인 선거운동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MBC 뉴스데스크 측은 “대도시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1인 날은 드물다”며 “파란색은 환경부에서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색이다”라고 반박했다. 성장경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이번 날씨 보도엔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며 “MBC 뉴스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히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사회 푸바오, 우리나라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

지난 3일 푸바오(Fu Bao)가 우리나라에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푸바오는 2014년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의 방한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판다 러바오(Le Bao)와 아이바오(Ai Bao)의 새끼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중국 소유의 판다다. 따라서 자이언트판다 보호 협약에 따라 다음 달 3일에 중국으로 반환될 예정이다. 푸바오는 지난 2021년 대중에게 공개된 이후 관람객 550만여 명을 만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푸바오 할아버지’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강철원 푸바오 담당 사육사는 “푸바오를 잘 키우고 관리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돌볼 것이다”라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 전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경제 프로야구 유료화 시대 개막해

지난 4일 한국야구협회(KBO)와 CJ ENM이 ‘KBO 리그 유무선 중계권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26년까지로 약 1,350억 원 규모다. 이로써 CJ ENM은 지상파 3사 중계와 별도로 KBO의 모든 경기를 생중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CJ ENM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티빙(TVING)’을 통해 프로야구 경기를 중계할 예정이다. 하지만 티빙이 유료 서비스라는 점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뉴미디어 매체로 프로야구 경기를 시청하려면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CJ ENM에 따르면 이번 해 4월까지 무료로 중계를 제공할 예정이며 40초 미만의 숏폼(short-form) 영상 제작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KBO는 지상파 3사와 맺은 중계권 계약을 2026년까지 연장해 TV로는 이전과 같이 프로야구를 시청할 수 있다.

국제 마크 저커버그 방한, 국내 기업들과 협력 논의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Meta) 최고경영자(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2014년 10월 이후 10년 만의 방한이다. 지난달 27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저커버그는 다음 날인 28일에 조주완 LG전자 사장 등 경영진과 확장현실 및 인공지능 사업을 논의했으며 저녁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9일엔 윤석열 우리나라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메타가 상상한 것을 한국 산업이 적극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력을 강조했고 이에 저커버그는 “메타가 파운드리(foundry) 분야에서 대만 TSMC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삼성과의 협력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전폭 해제 조치, 향후 전망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우리나라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그린 벨트(Green Belt)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역대 최대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가로 발표했다. 일각에선 이 조치로 인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했던 지방자치 단체(이하 지자체)들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

다. 한편 해당 조치가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정책이 갖는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최승필 우리학교 법 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자세히 알아보자.

최승필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Q1.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정의와 규제 현황 이 궁금합니다.

그린벨트는 본래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에서 기원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린벨 트라고 부르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빌어 정의해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과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개발의 제한이 필요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통칭하는 것 입니다. 즉 녹지확보라는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과 보안상 필요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 혼재된 개념으로 이러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면 적은 현재 3,793km²에 달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근거해 지정됩니 다.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 정하는 구역으로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으로 나뉘져 있으며 그 규모는 8,240km² 정도입니다.

Q2.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려는 배경 및 원인 그리고 정책적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 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의 행사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도 마음대로 집을 짓거나 경작을 할 수 없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 이 제약을 감수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넓은 범위로 설정된 제한구역은 재산권의 침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의 주택수요가 증가해 주택을 새로 공급해야 하 는 경우 또는 산업단지의 입지가 필요한 경우 등 주로 공공적 목적으로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개발을 통 해 주택 및 산업시설을 공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아마도 수도권의 해제는 주로 주택공급이 목적일 것이고 지방의 공 급은 산업단지를 포함한 시설의 공급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Q3.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 유입 등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번 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린벨트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지역 현안 사업 수행에 긍정 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체육시설△주택단지의 건설△첨단산업단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 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cluster) 등 첨단산업단지로 활용이 되는 경우 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기반제공과 인구 유입 등 그 긍정 적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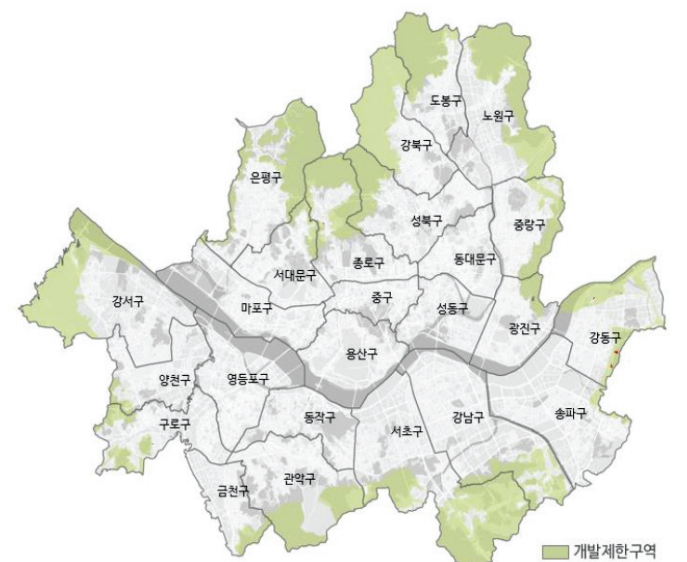
Q4. 이번 조치엔 환경 보존 가치가 높아 그린벨트 해제가 전면 금지됐던 환경평가 1등급지와 2등급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1·2등급지의 규제 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 나요?

개발제한구역은 환경평가를 실시해 5개로 등급화합니다. 등급평가의 항 목은 △경사도△농업적성도△수질△식물상△임업 적성도△표고 등입 니다. 이런 요소들을 평가해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전 가치가 높다고 판 단합니다. 원칙적으로 평가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지역은 개발사업 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그 원형 을 보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2등급지에 대한 개발은 자연환경의 훼손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 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선 개발 제한의 해제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해야 하며 개발 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국가나 지자체의 전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1·2등급지 의 해제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5. 지난 2003년에도 7개의 중소도시의 그린벨트를 전 면적으로 해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 간 의 유사점 및 차이점이 있나요?

2003년의 경우 7개 중소도시권(△전주권△제주권△진주권△여수권△ 청주권△춘천권△통영권) 1,103.1㎢가 해제됐습니다. 당시 목적은 토지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규모 면 에서 이번 해제 규모는 2428㎢ 정도로 알려져 2003년보다 두 배 정도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 (출처: 서울시)

Q6.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농지 규제 또한 대거 완화하겠다는 정책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다면 경지면적의 감소 폭이 커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약 151만 헥타르(ha)로 논과 밭의 비중은 반 반 정도입니다.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해 온 반면 그린벨 트 해제가 맞물린 경우 큰 폭으로 감소했죠. 2015년 그린벨트 해제가 발 표된 후 이듬해 경지면적이 당시 기준 20년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는 보도도 있습니다. 경지면적의 감소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격△농업 기술의 고도화△안보적 측면에서 식량의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수산축산부와 국토 교통부 간 상호 검토를 기반으로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 또한 필요합니 다.

Q7. 그린벨트 규제의 해제를 꾸준히 요구했던 지역이 이 번 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난달 말에 정책이 발표돼 아직까지 해당 지역의 반응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경제적 부가가 치를 창출하지 못했던 지역의 경우 새로운 활용의 기회가 생겼기에 대 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이번 조치는 매우 어려운 지방 경제 상황에 대

한 대책이 필요하단 관점에서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8. 이번 조치가 전국 토지 가격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 을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 렵습니다. 당연히 개발 제한이 해제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인가는 △그린벨트 해 제지역△원도심과의 거리△해제지역 내 입지시설 등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개발수요와 밀도가 높기에 상대적으로 큰 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해제지역 을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린벨 트가 해제됐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 녹지와 보존녹지로 활용되는 경우 활용범위의 일정한 제한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Q9. 이번 조치에 관해 여러 가지 우려 사항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판단 일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 선)를 위한 포퓰리즘(populism) 정책에 불과하다는 의견 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어 떤 것들이 필요할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규제 완화라는 방향을 잡았습시다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 다. 일단 △난개발의 가능성△산업입지의 수요와의 연계 정도△환경훼손의 문제 등 다양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제된 지 역에 산업수요가 없을 경우 골프장이 입지 하는 등 환경은 훼손되면서 정작 발표했던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선 환경의 불가역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훼손된 환경은 결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기에 우려가 더 큼니다. 현재를 사는 세대가 미래세대가 사용할 녹지까지 모두 소진한다는 본질 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산림의 밀도가 높아 ‘검은 숲’이라고 불리는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가 있음에도 개발을 위해선 긴 시 간의 고민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그리고 의회 차원의 논의까 지 숙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정책 방안을 구체화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개괄적인 방향성만 발표된 상태이기에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로드맵(Roadmap)△우려를 불식 시킬 구체적인 계획△판단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발 표 시점이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 는 것은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매도하는 것도 바람 직하지 않습니다. 이후 정부의 후속 조치가 그 성격을 가를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정책적 판단인지의 여부가 구체적 계획과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포퓰리즘이 아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포퓰리즘이 되 겠지요.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학보의 봄

추운 겨울의 쓸쓸함이 지나가고 어느덧 우리학교에도 다시금 봄이 찾아왔다. 사람이 많은 공간을 좋아하진 않지만 휴학 후 무려 9달 만에 맞이한 복직임은 왠지 모를 울컥함과 따스한 반가움을 느끼게 해줬다. 새내기 시절 우러러보던 학교 본관과 감탄을 자아내던 신축 도서관은 이제 익숙한 풍경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나에게는 한 가지만큼은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 이번 해는 그토록 바라던 외대학보 기자로서 학교에서의 활동을 이어나가게 됐다.

내게 외대학보는 오래전부터 함께 하고있던 꿈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휴학 문제로 인해 외대학보에 발을 딛는 데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인지 수습 활동을 하던 시기 나는 누구보다도 들뜬 채 적극적으로 모든 활동에 임했다. 실제 외대학보 활동을 시작한 시점에도 두려움보다 설렘과 자신감으로 제안서를 작성했다. 물론 그렇게 열정을 가득 담아낸 제안서가 반려됐을 땐 잠시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내 기사가 판단되는 그 순간이 학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줘 묘한 흥미를 끌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던 시기는 실제 기사를 작성하던 시점이었다. 첫 기사는 수습 기간에 적었던 모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하면 되는 기획 기사였기에 기사를 구성하고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은 아주 힘들진 않았다. 오히려 인터뷰를 요청하고 기사 내용에 관한 질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30번 이상의 통화 시도와 10개 이상의 메시지 발송에도 불구하고 마감 직전까지 누구도 답장을 주지 않던 일주일의 시간은 어느 때보다도 더디고 고통스럽게 흘렀다. 그래서 지 발령을 앞둔 주말 아침에 찾아온 두 개의 메일 답장을 보자 탄성이 흘러나왔다. 겨우겨우 그 답장에 담긴 내용을 기사에 첨부하며 기사는 단순히 글 작성 이상의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야 만들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악명 높은 철야 작업은 의외로 어렵지 않았다. 이미 군대를 다녀왔기에 낯을 세는 것이 익숙하다는 점도 한몫했지만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구성원들과 함께 작업하고 소통하는 순간이 정말 즐거웠기에 그 순간을 몰입할 수 있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어색했던 동료 기자들과도 한 차례 동고동락하며 화기에애해진 것 같아 즐겁고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물론 아침이 밝아올 때의 적막이 내 피로감을 가중했지만 그 래선지 조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운 갑옷을 벗는 것 같은 해방감을 선사했다.

아직 외대학보에서의 시간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이 순간이 나에게는 더없이 값지고 놓치고 싶지 않은 시간이다. 앞으로의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협력과 열정으로 일궈내는 외대학보에서의 기사 하나하나가 먼 훗날 소중한 추억이자 내 삶의 큰 의미로 빛나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병찬 기자

[책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고 수레바퀴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다만 잘 살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내가 직접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존재한다 19세기 말 독일에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사회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일로 여겼다. 한스 기벤라트(Hans Giebmath)의 주변인들 또한 그가 신학교에 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그 염원에 부응하듯 한스는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입학한다. 그는 방대한 공부량을 요하는 엄격한 신학교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하지만 결국 신경쇠약을 판정 받아 학업을 포기한 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고향에서도 한스의 무기력증과 우울증은 나아지지 않는다. 한스는 기계공으로 일하며 새 삶을 시도하지만 술에 취한 다음날 물에 빠진 주검으로 발견된다. 한스가 왜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다. 한스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우리 모두 저 아이에게 소환됐어요”라고 입을 모은다.

동통 떠다니는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같은 원을 돈다. 이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현대인의 삶의 흐름을 의미한다. 학생은 학업에 정진하고 직장인은 출근하기 바쁘며 노인은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살아가는. 인간은 나이를 불문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일지도 모른다. 한스가 물에 빠진 밤 달빛이 한스를 비춘 것은 그가 인생의 피곤함과 두려움에 지쳐 현실에 저항하지 못한 채 죽음의 그림자에 휘말린 것을 나타낸 것이

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미래를 꿈꾸는 삶은 현대인에게 허락된 망상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 때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삶의 주인이자 주체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만큼의 소유권을 스스로가 갖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수레바퀴는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힘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스는 교육에 대한 강박과 어른들의 고정관념이란 수레바퀴에 눌려 자신만의 사상을 가질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교육과 입시에 대해 경험해보고 고민했을 것이다.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과 올바른 교육을 거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 있어야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아이들이 제 나이에 경험하고 배워야 할 것들 보다 입시를 위한 교육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에게 “우리가 아이들을 수레바퀴 아래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해 깊게 고민할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가 반드시 겪을 고난의 순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가 삶에 대해 가지는 열정과 의지일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길 바란다.

지유솔 기자 07yusolhufs.ac.kr

[영화 '엘리멘탈'을 보고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내는 가능성]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질문인 것 같다.

영화 엘리멘탈(Elemental)은 성질이 상극인 원소 물과 불의 사랑 이야기로 이 난제를 시사하고 있다. '엘리멘탈 시티(Element City)'엔 △공기△물△불△흙 4개의 원소들이 살고 있다. 이들 중 서로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란 물의 원소 웨이드(Wade)와 불의 원소 엠버(Amber)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나 성격 또한 서로 달랐다. 웨이드는 자유로운 가정에서 자라 감정이 풍부하고 물처럼 유연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웨이드는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등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다. 이와 반대로 엠버는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원소들에게 차별당해 불의 커뮤니티로 이민을 가 그곳에 정착하게 됐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성격이 불처럼 열정적인 엠버는 본인의 꿈을 찾기보다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으려 한다. 이처럼 자라는 환경의 차이로 이 둘은 양극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처음엔 서로 긍정적인 인상을 받지 못했다. 다름이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화목하고 여유로운 웨이드의 집안 분위기와 엠버의 재능을 발견하고 새로운 일 자리를 제안해 준 웨이드 어머니의 선의는 엠버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후 아버지와 크고 작은 불화를 겪은 엠버는 이런 혼란을 만든 웨이드를 무작정 멀리하려 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거는 웨이드를 본 엠버와 그녀의 가족들은 웨이드를 받아들인다.

서로 다른 점이 많았으나 사랑은 그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다름을 온전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물과 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어쩌면 서로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성장 배경은 그저 '다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하다. 이를 고려하면 본인의 생각만을 고집하며 타인의 배경과 생각을 이해하지 않는 태도가 진정한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 또 나와 다르고 낯설다는 이유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소중한 인연들을 놓칠 수 있다. 때로는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시키고 유연한 생각들을 배우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직접 만나보기 전부터 이 사람의 성격은 나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긋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양극단의 성격이어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로 다르고 비슷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닌 상대방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다. 이 영화는 결국 다른 속성이라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어떤 원소와도 같이 어울린다면 자신의 능력이 더욱 확장된다. 공존의 교훈을 주는 엘리멘탈을 보고 당신도 같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가?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1088호 학보를 읽고 봄의 해가 끝도 없이 비추길

봄을 맞이해 캠퍼스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경쾌해 보인다. 이번 외대학보 1088호에선 △동계방학 도서관 운영 시간△이중·부전공생의 수강 신청 제한△총학생회장단(이하 총학)의 청사진△AI 융합대학의 발전 방향을 다루며 우리학교 학생들의 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의 이정표를 볼 수 있었다.

3면에선 단축된 동계방학 중 도서관 운영 시간과 AI 융합대학의 발전 방향을 다뤘다. 양 캠퍼스 도서관 일부 공간들의 동계방학 중 운영시간이 학기 중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돼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학생 측은 계절학기 기간만이라도 운영 시간을 연장해 줄 것과 자료실 내 무인대출기의 자유로운 이용을 희망했으나 학교 측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두 요구사항 모두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외대학보는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자책과 무인 대출 반납기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도서관 이용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되기에 상호 간의 의견이 원만하게 조율돼 해결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다음으로 AI 융합대학은 기존에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교강사를 충원하고 전자 학습 시설을 설치하며 쾌적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AI 융합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외대학보는 다른 학교의 사례를 참고해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다양한 제도 마련과 이중·부전공생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비교과 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했다. 앞으로도 학내 구성원 모두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AI 융합대학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고 우리학교의 위

상이 드높아지길 소망한다.

4면에선 제58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의 청사진을 조망했다. 총학은 △문화 행사 기획△학생들의 교육권 향상△학생 복지와의 같은 사안에 집중하며 학교와 학생 간 가교 구실을 충실히 할 것을 밝혔다. 특히 꾸준히 제기돼 온 졸업학점 축소 논의를 활발하게 재검토함과 동시에 청량리 시장을 다채롭게 활용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총학의 포부가 실현되기 위해선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수적이다. 총학이 그린 청사진의 선명한 빛깔 아래 더욱 성원해진 학생들의 미소를 기대한다.

5면에선 이중·부전공생의 수강 신청 제한 문제가 지적됐다. 1전공생을 우대하기 위한 일부 학교의 조치가 이중·부전공생의 수강 신청을 제한해 형평성을 둘러싸고 의문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중·부전공생의 수강 신청을 제한한 학과 측은 최대한 많은 학생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입장이다. 학교 측도 여러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다양한 시각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외대학보가 제시했듯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수강 신청 제도를 참고해 우리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해법을 찾길 바란다.

안제나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 섬세한 봄의 햇살 아래 학생들의 마음 속 저마다 피어난 꽃망울이 터져질 학교의 신화기를 기대한다.

명나디(일본 · 융일지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88호 학보를 읽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지난 외대학보 1088호에선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이하 총학)의 새로운 캠퍼스 정책에 대한 인터뷰△쿠바와 수교△LG CNS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다루며 대내외적인 사회 및 기획 정보를 제공했다.

1면에선 LG CNS와 우리학교 간의 업무협약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과정 공동 개발△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채용 연계형 현장 실습 프로그램 등을 통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LG CNS는 외국어 및 글로벌 특화 인력을 선발하고 참여자들은 LG CNS의 디지털 전환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현업에서의 경험을 쌓게 된다. LG CNS 빌드센터장 상무는 디지털 전환 기술에 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유익한 협력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이 이를 통해 우리학교의 외국어 및 국제 분야의 강점을 살려 정보통신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4면에선 제58대 총학의 취임과 그들의 새로운 캠퍼스 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다뤘다. 기사는 인터뷰를 통해 총학이 제시하는 주요 공약 및 계획을 소개하고 있었다. 총학은 학습권 강화와 지역 상생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예고했다. 이 기사에서 새로운 총학은 학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습권과 같이 중요한 이슈에 대한 집중과 관

이유진(동유럽 · 세르비아크로아티아 22)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련 계획의 소개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상생 계획을 통해 학교와 지역 사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총학의 공약과 계획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나 어려운 점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이 부족했던 것 같다. 심층적인 자료를 통해 정책이나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기사에 담았다면 독자들에게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8면에선 우리나라와 쿠바의 외교적 변화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다루고 있었지만 보다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외교적인 변화에 대한 단순한 사건 공지만으로 그치지 않고 깊이 있는 분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를 다룰 때 이 변화가 국제적인 위치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깊이 있는 분석이 이뤄졌다면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보완을 통해 외대학보가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많은 학생들이 외대학보를 통해 대내외적 상황과 시사점에 눈을 뜨는 귀중한 시간을 선물 받았으면 한다. 유익하고 알찬 기사를 작성해준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내며 유일무이한 외대학보의 가치가 세상 넓게 뻗어나가길 소망한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며

부장이 돼 마감을 치른 지도 벌써 두 번째다. 정기자 시절 내게 비친 국·부장단 선배들의 모습은 멋있어 보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다. 이젠 내가 그런 모습으로 비친다고 생각하니 여러모로 기분이 오묘했다. 사실 교열 등 여러 부장기자의 업무를 아직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는 내 모습을 보며 나름의 뿌듯함도 느낀다.

이번 외대학보 1089호에선 개강 직후 있었던 여러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준기획에선 활용도가 낮은 학내 공간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미네르바 광장과 하늘 공원의 활용도가 낮고 이에 대해 학교 측 또한 인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진 않았다. 관련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 해당 공간들이 다시 학내 구성원들로 가득 찰 수 있었으면 한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무전공 입학 제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최근 정부는 무전공 입학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학교도 무전공 입학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엇갈리는 시선들을 다뤘다. 해당 사안에 관해 학내 구성원 간 생산적인 소통이 이뤄져 건설적인 결론에 도달했으면 한다.

한편 이번 학기부터 우리학교에서도 시작하게 된 ‘전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해당 사업이 우리학교에서 어떻게 시행됐는지와 함께 시행 후의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다뤘다.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운 만큼 여러 문제점이 보완돼 더 많은 학생들에게 행복한 아침을 선물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 밖에도 최근 범람하고 있는 외국어 간판 및 메뉴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해당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여러 원인에 대해 분석해 봤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108기 기자들과 처음 얼굴을 마주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마감이 끝나가고 있단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벌써 최고의 기사를 만들어 내는 이번 108기 기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한편으론 그 과정에서의 고단함을 알기에 수고했던 말도 전하고 싶다. 항상 내 곁에 있어 줬 든든한 우리 107기 동기들과 묵묵히 외대학보를 이끌어가는 편집장에게도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다.

남우현 부장 07woohyun@hufs.ac.kr



부엉이 메신저



새내기 여러분!! 모두 외대에 온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재학생 여러분도 개강 화이팅입니다!!❤️❤️

-익명-

선배님들 외대 근처 맛집 추천해주세요!!

-새내기 부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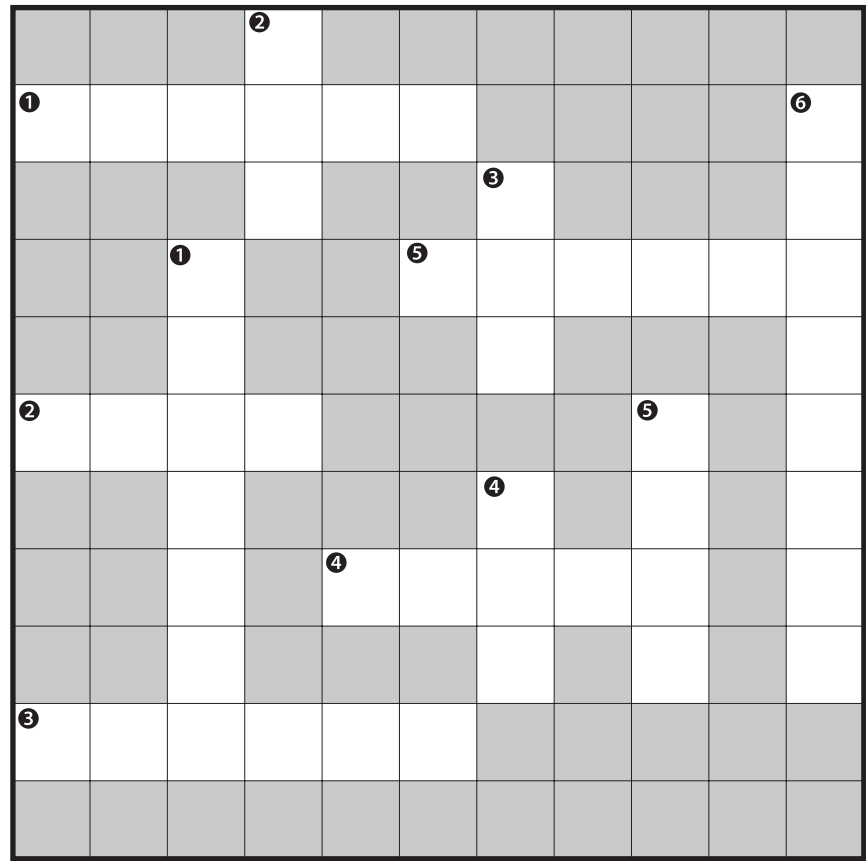
개강한지 1주일...이제 그만 종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익명-

3월인데 아직도 너무 춥다...빨리 따뜻해졌으면...

-익명-

십자말풀이



- 가로**
- 1. 본관 뒤편에 위치한 부지로 본관, 법학관, 인문과학관을 이어주는 공간 (3면)
 - 2. 본관 5층에 위치한 정원 (3면)
 - 3. 청년들의 중장기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계좌 정책 (3면)
 - 4.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신입생환영회와 동아리박람회를 진행한 행사 (2면)
 - 5.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난 2022년에 시행한 저금 상품 (3면)
- 세로**
- 1.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제도 (4면)
 - 2. 다음 달 3일에 중국으로 반환될 예정인 자이언트판다 (8면)
 - 3. 글로벌캠퍼스의 2024학년도 입학식이 진행된 장소 (1면)
 - 4. 3월 4일 진행된 신입생 환영 무대의 초대가수 (2면)
 - 5. 우리학교와 동대문구는 ○○○○ 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면)
 - 6. 백재승 우리학교 국제금융학과 교수가 창립회장으로 선임된 학회 (2면)
- ※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학보와 함께한 수많은 날들

이번 신문은 내가 학보에 들어온 이후로 14번째의 발행이다. 매번 밤새워 작업하고 새로운 기자들을 만나며 난 정기자에서 부장을 거쳐 편집장까지 하게 됐다. 아마 학보를 통틀어 △정기자△부장△편집장을 모두 경험한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나 또한 처음 학보에 지원할 때 까지만 해도 내가 편집장으로서 외대학보를 대표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처음 부장으로서 활동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학보를 하다보면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다. 당장 내 기사를 쓰기만으로도 벅창기에 과연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피드백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부장으로서의 첫 마감은 정기자때와 사뭇 달랐다. 함께 웃고 떠들며 서로의 잠을 깨워주던 정기자 시절과 달리 끊임없이 글을 읽고 피드백을 하며 다소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또 그렇게 전달한 피드백이 잘 반영되지 않거나 기사를 쓴 기자와 의견이 충돌해 논쟁이 오갈 때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자책하며 회의감이 들곤 했다.

편집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을 때도 기쁘기보단 걱정이 앞섰다. 주변에선 다들 축하해주며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지만 함께했던 동료 기자들이 졸업하거나 모두 떠나고 나 혼자 남아서 학보를 이끌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몇 번이고 한숨을 내쉬었던 것 같다. ‘그래도 해야지 어찌겠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사를 고르고 수정하다 보니 또 이 생활에 나름 적응한 것 같다. 이렇 때면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던 동료 기자들과 특히 바로 내 옆에서 항상 열심히 도와주는 남우현 부장(이하 남 부장)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어쨌면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남 부장인 것 같다. 홀로 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며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피드백을 한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나 또한 남 부장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한다.

이번 108기 정기자들 모두 열정이 넘치고 글쓰기에 흥미가 많은 사람들이어서 내 걱정보단 순탄하게 학보가 굴러가고 있는 듯 하다. 물론 107기 차장들의 노련함과 성장 덕분이기도 하다. 외대학보를 하며 내가 직책이 바뀌고 조금씩 성장할수록 함께 해온 기자들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뿌듯해지기도 했다. 학보에서 신문 한 부를 발행하기 위해선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필요하다. 기사를 써야 하는 정기자와 차장은 물론이고 취재에 응해주는 여러 기관 및 학생들의 관심도 중요하다. 항상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총학생회와 학보의 실무를 담당해주시는 교직원분까지 매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자들이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는 주간 교수님과 신문이 잘 조판되고 발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외부 업체분들도 모두 학보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기사를 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수없이 피드백과 교정 작업을 거쳐 이 모든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가야 한 부가 발행된다. 그렇기에 더 많은 학생들이 외대학보의 가치를 느끼고 보냈으면 한다.

외대학보 활동을 하며 여러 느낀 점들이 많지만 최근 들어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함께 발전해나가는 모든 순간들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진다. 우리의 소중한 인연은 아마 다른 곳에 가서 생기는 인연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함께 밤을 지새우고 모두가 ‘좋은 신문을 만들고 싶다’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과정은 내가 학보를 졸업한 후에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아직 학보 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나와 함께 성장해나가며 꼭 좋은 결말을 맺었음 한다. 여태까지의 학보 생활 동안 느낀 점들을 쓰자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다. 아마 학보를 하며 이런 글을 앞으로 또 얼마나 남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나도 학보에 흔적 하나라도 더 남기고 싶은 마음이다.

임채린 편집장 06chaelin@hufs.ac.kr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6chaeli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임채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김선웅 작가를 만나다

필명 ‘굽시니스트’ 활동 중인 김선웅(서양어·포르투갈어 00) 작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 주간지 중 하나인 ‘시사in’과 웹툰(Webtoon) 플랫폼(Platform)인 ‘코미코(Comico)’에서 활동 중인 만화작가다. △사회 △역사△정치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된 만화를 그리는 김선웅 작가는 시사in에선 정치 풍자 만평으로 코미코에선 역사만화인 ‘본격 한중일 세계사’라는 작품으로 이름을 알렸다. 예리하지만 유쾌한 풍자를 대중들에게 전하는 김선웅 작가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포르투갈어과에 입학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우리학교에 입학했던 1999년 무렵 브라질은 △기회의 땅△미래의 경제 대국△자원 부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드넓은 토지를 개척하고 개발하는 것에 대한 환상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인연이 닿아 우리학교 포르투갈어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Q2. 학교생활 중의 경험이 작가로서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중앙 동아리 중 만화 동아리인 ‘해갈’에서 열심히 활동하느라 학업에 온전히 노력을 쏟지 못했어요. 그러나 해갈에서 그림을 그렸던 소중한 경험이 작가로서의 진로를 정하는 데 막중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Q3. 만화작가로서의 꿈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많은 만화작가를 꿈꾸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만화책을 읽으며 ‘나도 만화를 그려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 성장기를 거치며 많은 계기와 충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중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은 제가 세상을 향해 얘기할 때 글보다 만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고 더 많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가 희열감을 얻는 모습을 보며 만화작가의 꿈을 갖게 됐습니다.

Q4. 그림 실력은 어떻게 갈고닦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미술학원에 다녀보거나 인터넷에 이런저런 만화를 올려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해 창피를 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은 내세울 만한 그림 실력이 아닌지라 갖고 닦았다고 말하기는 부끄럽습니다.

Q5. 정치 평론 만화 외에도 현재 역사를 다루는 만화 역시 연재 중인데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역사만화를 그리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역사에 대한 관심은 특별한 계기로 인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목적인적 주박을 꿋고 실존적 자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그 계기에 대한 훨씬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죠. 그 주박을 꿋지 못하고 집착하는 사람들 중에 만화를 업 삼은 사람들



▲굽시니스트 시사 만화 (출처: 시사in)

결국 역사 만화를 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Q5-1. 작가님께서 그리는 역사만화를 보면 주로 동아시아의 근현대사가 다양한 역사 중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주제로 만화를 그리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동아시아 사람이고, 시간적으로 손에 닿는 가까운 시기가 근현대사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사람이었다면 17세기 유럽사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Q6. 시사in에서 만화를 그리게 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올린 만화들이 시사in 기자님의 눈에 들어 짧은 분량의 만화 연재를 의뢰받게 된 것이 시작이었어요. 이때 좋은 기회를 얻어 지금까지 시사in에서 프리랜서(freelancer)로 15년 동안 장기연재하게 됐습니다.

Q7. 정치를 풍자하는 만화작가로서 겪는 고충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저와 정치 성향이 맞는 잡지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쪽 진영의 작은 포탑 하나를 맡은 셈이죠. 당연히 반대 진영 사람들의 원망을 사기 쉬운 일이지 그것이 고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진영을 향해 일명 ‘기분 나빠져라 포탄’을 주기적으로 한 발씩 날리고 있으니 제가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학 시절 외대학보도 이와 유사하게 학내 언론기관으로서 여러 사안에 대해 비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대학보와 같이 저도 만화를 통해 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도에 대한 시선이 매우 너그롭습니다. 그런 유리한 여건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Q11. 무겁고 민감한 주제가 많은 역사에 재미있는 요소들을 포함 시키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겁고 민감한 주제는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기에 너무 심각하게 풀어내거나 작가 스스로 과하게 긴장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Q12. 학문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만화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계의 발전 속도를 체감할 정도로 다테일한 만화를 그리지는 않기에 아직까진 그런 경우가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음 만화에서 수정해야겠죠.

Q13. 역사 만화를 그리는 데엔 어떤 소양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역사 만화는 정치 풍자 만화와는 달리 주인공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기에 그 캐릭터 조형에 매우 높은 자유도를 가져갈 수 있죠. 역사 만화를 그리는 데엔 일단 역사 이야기를 간단하게 읊조릴 수 있는 능력과 만화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14. 시사 평론 만화작가가 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사 평론 만화작가라는 직종은 직업의 안정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화작가란 특성상 소득도 미래도 다른 안정적인 직업에 비해 불안정한 편이죠. 게다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상을 논하는 일이니만큼 여러 사람에게 원망도 널리 사게 됩니다. 정말 정치에 큰 관심이 있으며 서로 다른 진영을 비판 및 풍자하는 일에 몰입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시사 평론 만화작가라는 직무에 적합하다고 한 것 같아요.

Q7-1. 이러한 고충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제가 풀리처상(Pulitzer Prize) 같은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기 전까진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마땅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Q8.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비판과 풍자는 무엇인가요?

△양비론적△중립적△편향적인 내용 그 어떤 것이든 이를 보는 사람의 입꼬리가 올라간다면 좋은 비판과 풍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Q9. 만화작가로서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화작가로서의 최종 목표는 미국의 △문학적 업적△신문 저널리즘 업적△음악적 업적에 가장 높은 기여와 영향을 준 사람에게 수여하는 풀리처상을 수상하는 것입니다.

Q10. 역사를 다루는 콘텐츠 특성상 일부 역사적 사료는 정확도가 부족하거나 기록자의 주관과 평가가 포함될 수밖에 없단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중 교양 영역 중에서도 만화라는 오락에 가깝게 취급되는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라 표현 양식과 자